

기술분석보고서 화학

뉴보텍(06026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김혜란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뉴보텍(060260)

물 환경 인프라를 선도하는 종합 환경솔루션 전문기업

기업정보(2025.07.03 기준)

대표자	황문기
설립일자	1990.11.01
상장일자	2002.02.05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산업재
주요제품	고강성 PVC DC, HDPE 등 제조, 판매

시세정보(2025.07.03 기준)

현재가(원)	1,63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20
발행주식수	13,512,009
52주 최고가(원)	3,505
52주 최저가(원)	943
외국인지분율(%)	3.75
주요주주	(주)에코, 황문기, 상호수지(주), 황희선

■ 상하수도·재활용·제설제 분야를 아우르는 환경 인프라 전문기업

(주)뉴보텍(이하 ‘동사’)은 1990년 (주)강원프라스틱으로 설립되어 상하수도관 제조 및 관로 보수,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제설제 등 다양한 환경 기반 사업을 전개해 온 환경 인프라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개발하며 상하수도관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으며,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매년 사업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다. 또한 친환경 기술과 비굴착 보수공법 등 자체 개발한 환경신기술 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중심의 사업다각화 추진

동사는 상하수도관 제조뿐 아니라, 노후 관로를 굴착 없이 보수하는 NPR, ERS, OCR 등 비굴착 보수공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신기술 인증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정·일반 폐기물의 재생 원료화, 재생 펠렛 생산 등 재활용 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표지인증·조달우수제품 지정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숲 고상 제설제 ‘에코-다노가’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설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스마트팜 연계를 위한 수처리 사업, 빗물저장시설 등 수자원 순환 시스템 사업 까지 진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 친환경 중심 정책 변화 속 수요 확대 기대

동사의 사업모델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노후 인프라 보수 확대 정책, 물 재이용 및 녹색기술 투자 확대와 맞물려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각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 및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물 재이용 촉진법’, ‘물관리기본법’등 정부 정책은 폐수·빗물의 순환 이용 확대를 촉진하고 있으며, 고성능 전기촉매필터 기술 등 동사의 고부가 환경기술 적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속하며, 환경건설 분야에서의 경쟁력으로 국내 대표 환경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460	-2.1	7	1.6	-27	-5.9	-18.27	-5.10	209.2	-366	2,196	N/A	1.57
2023	489	6.2	-1	-0.2	-48	-9.7	-31.62	-9.55	259.7	-578	1,614	N/A	2.29
2024	434	-11.2	26	6.1	13	3.0	7.60	2.63	144.4	131	1,570	8.82	0.74

기업경쟁력

환경신기술 기반의 기술력	NPR, OCR, ERS CIPP 등 비굴착 관로 보수에 대한 핵심기술 및 신기술 인증 확보 환경 배관 및 물 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과제 실적, 등록 특허 보유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파이프, 재활용, 제설제, 수처리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계열성과 공공성 등 균형 잡힌 매출 구조로 안정성과 성장성 동시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환경신기술 기반 배관 제조 및 비굴착 보수공법 보유	고강성 PVC 배관 제조 기술 뿐만 아니라 NPR, ERS, OCR 공법 등 노후화된 도시 기반 시설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신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
환경표지인증 획득한 친환경 고상(畝) 제설제 생산 기술 확보	부식 및 유해물질 저감, 미세오염원/수질오염원 저감을 통해 친환경성을 개선하고, 장기간 보관 시 고결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 폐기 또는 파쇄 등 추가 비용을 절감하는 친환경 제설제 개발로 환경표지인증, 성능인증, 우수 발명품, 조달우수제품지정 등 획득함

환경을 고려한 비굴착 보수공법(NPR 공법 등)



시장경쟁력

상하수도관 배관재 사업 선도	1997년 국내 최초로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개발하여 신기술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되어 환경배관 사업의 발전을 선도
저류조 및 물 재이용 기술 개발 역량 보유	기후위기 시대의 물 부족 문제 해결, 정부 정책 방향성, ESG 트렌드에 대응 가능한 저류조 및 수처리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공공·산업·농업 분야 전반에서 높은 시장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생산 설비, 품질관리, 공공시장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동사는 상하수도관, 재활용, 제설제 사업을 위해 기술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여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내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주요 원재료를 전량 국내에서 조달, 자재를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공급 안정성을 확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에코-다노가' 친환경 슛 고상 제설제를 통해 생태독성 저감, 수질오염 방지 등에 기여 ◎ 폐플라스틱·지정폐기물 등을 재생 원료로 가공하여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 ◎ 하수처리수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수자원 고갈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물 순환형 도시 인프라 확대
S 사회책임경영	◎ 제품 기부 및 교육지원 사업, 의료구호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수행 ◎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산업포장 수훈,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전국 품질분임조 대통령상 수상 등 직원 안전과 복지, 품질혁신에 대한 투자 및 제도 구축
G 기업지배구조	◎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각 3명)를 운용 중임 ◎ 이사회는 총 6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음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주 현황 및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I. 기업 현황

상하수도·재활용·제설제 분야를 아우르는 환경 인프라 전문기업

동사는 1990년 플라스틱 배관 자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환경 배관과 건설 환경 분야를 비롯한 물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1990년 환경관련 배관자재(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주)강원플라스틱에서 (주)뉴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상하수도 사업, 재활용 사업, 친환경 제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ESG 전문기업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과 자원 순환, 품질 혁신을 통해 환경적 가치와 비즈니스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배관과 건설 환경 분야를 비롯한 물 관리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이력

동사는 1997년 국내 최초로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개발하며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00년 (주)뉴보텍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이후, 2001년 벤처기업대상과 산업포장을 수상하며 성장 기반을 다졌다. 2002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2003년 원주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역량을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하수관 시공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넓혔으며, 2006년에는 일본 세키스이와의 기술도입 계약과 함께 환경신기술 NET 인증(PVC DC)을 획득하였다.

2010년에는 저류조 분야 환경신기술 NET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2012년에는 비굴착보수 환경신기술 NET 인증, 국방부 신기술 인증, 조달청 자가품질보증 인증 등 다수의 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되었고, 2015년 전국 품질분임조 대통령 금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혁신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며 친환경 사업영역을 확장하였고, 2020년에는 환경신기술 취득과 함께 자회사 (주)엔비텍을 설립하였다. 2024년에는 ERS공법 환경신기술 인증과 함께 수도용 내충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물산업우수제품 지정을 받는 등,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사업 다각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1. 주요 연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대표이사 황문기는 과거 (주)거산 부회장, 상호수지(주)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동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동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년간 축적된 기술 사업화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 종속회사 및 주주현황

동사는 2020년 종속회사인 (주)엔비텍의 지분(100%)을, 2022년 종속회사인 하이퍼타입(주)의 지분(100%)을 인수하였다. 해당 기업은 각각 플라스틱 재생 원료 및 관련 제품과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의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종속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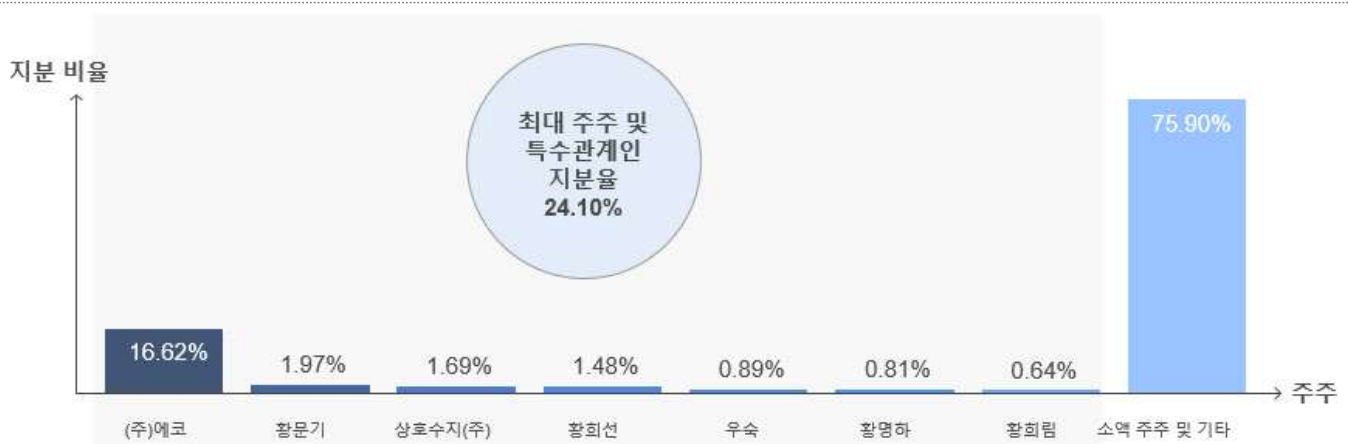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 사업	업계 현황	매출액(백만 원)*
(주)엔비텍	플라스틱 재생 원료 및 관련 제품 제조 및 공급	친환경 정책과 ESG 경영 확산으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산업계 협력과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주)하이퍼타입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 및 공급	파이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 외관의 품질과 내구성 향상을 위해 광택 처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오염성·내식성 등 기능성 강화와 친환경 소재 적용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 2024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2025년 3월 분기보고서 기준, 동사의 최대 주주는 (주)에코로 2,245,637주(16.62%)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상호수지(주)가 228,035주(1.69%), 황문기 266,500주(1.97%), 황희선 200,027주(1.48%), 우숙 120,382주(0.89%), 황명하 109,600주(0.81%), 황희림 86,446주(0.64%)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4.10%를 나타내었다. 한편,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코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림 2. 주주 현황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및 매출현황

동사는 수도관·하수도관·빗물저장시설 등을 주요제품으로 포함하는 상하수도 사업과 재활용 사업 및 제설제 사업, 총 3개를 주요 사업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ASA 파이프, 메가오수받이 등과 관련된 상하수도 사업부문 매출이 65.9%, IBC 토트, PVC 드럼 등을 포함하는 재활용 사업부문이 6.9%, 제설제(에코-다노가) 관련 사업부문이 27.2%의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고강성 PVC 이중벽관, 수도관, 메가오수받이, HI-VG, 에코-다노가 등에 대한 수주 실적이 확인되며, 제설제(에코-다노가)에 대한 제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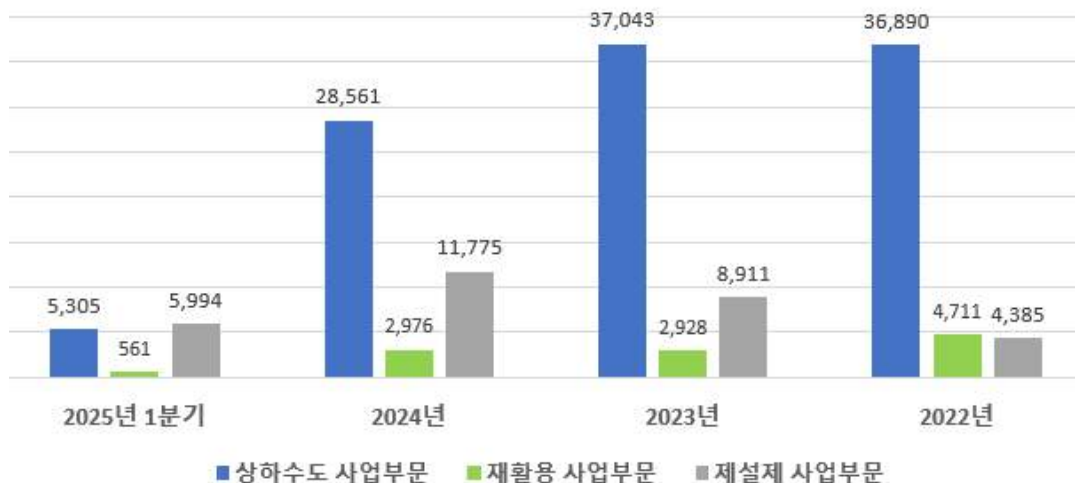
표 2. 사업 분야

사업부문	품목	주요 사업의 내용	매출액 (백만 원)	매출 비중(%)
상하수도 사업부문	상수도관 배관재	- 내충격 수도관(ASA Pipe) - 이탈장비 내충격 수도관 - GIS 내충격 수도관	28,561	65.9
	하수도관 배관재	- PVC 이중벽관(DC Pipe) - 일체형 PVC 이중벽관 - 내충격 하수관(HI-VG) - 메가오수받이 - 소형맨홀		
재활용 사업부문	지정폐기물	- PVC 드럼 1톤 IBC 토트 세척 및 판매	2,976	6.9
	일반폐기물	- 재생원료 재활용 및 판매 - 품질 우수 재생펠렛 생산		
제설제 사업부문	친환경 제설제	친환경 슛 고상 제설제 에코-다노가	11,775	27.2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3.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조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노후 인프라 교체와 안전한 물 관리에 대한 요구에 힘입어 상하수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노후 인프라 교체와 친환경 정책 강화에 힘입어 상하수도 및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상하수도 인프라의 현대화와 시장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상하수도 및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 규모 및 전망

상하수도 시장은 전국적으로 노후 인프라 교체와 안전한 물 공급, 효율적인 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상하수도관의 체계적인 교체가 본격화되고, 물 재이용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하수도 인프라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하수도관의 품질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며, 시장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하수도 인프라의 확충과 노후관 교체가 활발해짐에 따라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하고 있다. 플라스틱 파이프는 기존 주철관이나 콘크리트관에 비해 내구성, 부식 저항성, 경량성, 시공 편의성 등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상하수도, 배수, 건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친환경 건설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납계 열안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PVC 파이프, 재생 플라스틱 소재 적용 제품 등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고기능성 제품의 출시도 활발하다.

Market US(2024)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상하수도 처리 장비 시장은 580억 달러에서 5.5%씩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여 2033년 99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동일한 연평균 성장률 적용 시, 2034년에는 1,04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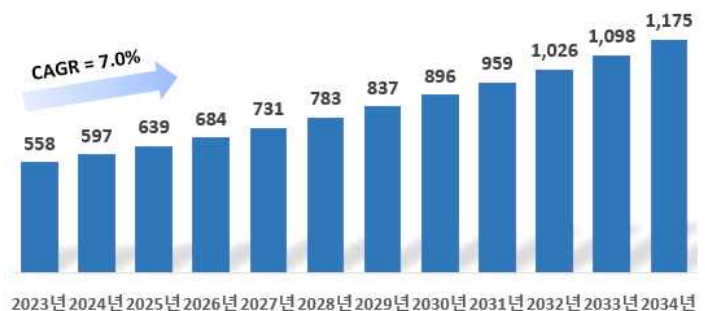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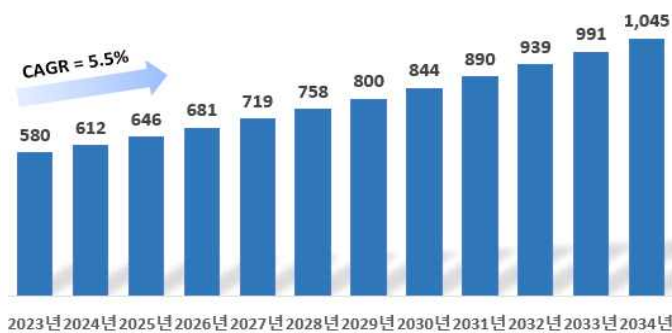
Global Information(2024)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 규모는 558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0%로 성장하여 2032년에는 1,0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동일한 연평균 성장률 적용 시, 2034년에는 1,17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글로벌 상하수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그림 5. 글로벌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Market US(2024), Global Information(2024),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노후관 교체 및 현대화 정책으로 인한 관련 시장 확대

상하수도 인프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시설로,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최근 기후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도시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환경부는 상하수도 인프라의 현대화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367억 원, 2025년에는 3,99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도 50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5%에 달하고, 농어촌 지역도 96.4%의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관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망 정비, 정수장 정비 등 다양한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조 7천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은 상수도 누수율 감소, 유수율 향상,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수도 분야 역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5.4%에 달하며, 하수관로의 총연장은 17만 2,495km에 이른다. 이 중 37.9%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로, 정부는 2025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1조 6,26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저류시설 확충 등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환경부는 실집행률 제고와 사업성과 유지를 위해 지자체 협업, 예산 조기 집행,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및 현대화 정책으로 상하수도 교체 및 보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용완료 PVC 배관재의 활용 확대와 재활용 의무화 정책은 동사의 재활용 사업 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기관별 시장전망

글로벌 상하수도 처리 장비 시장은 2023년 580억 달러에서 5.5%씩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여 오는 2033년에는 99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 규모는 2023년에 558억 달러에 달하며, 2024~2032년 CAGR 7.0%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Market US, Global Information

글로벌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 규모는 2023년 654억 달러에서 2031년 1,03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2031년 동안 5.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The Insight Partners

상하수도 및 플라스틱 파이프 시장은 도시화와 환경 규제 강화,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 변동과 폐기물 처리 부담 등은 시장 확대에 일정 부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쟁업체 현황

글로벌 상하수도 및 플라스틱 시장에서는 Zhejiang Weixing New Building Materials(중국), Wolfgang Freiler Group(오스트리아), Molecor Technologia(스페인), Georg Fischer Piping Systems(네덜란드), Streng Plastic(스위스), WL Plastics(미국)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등 인프라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내구성 강화, 신기술 적용, 품질 표준화, 그리고 다양한 산업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우산업(주), (주)삼정DCP, PPI파이프(주), 두리화학(주) 등의 기업이 친환경 및 고강성 PVC 파이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다.

표 3.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경쟁업체
신우산업(주)	- 국내 최초로 PVC 배관자재를 생산한 플라스틱 배관 전문기업으로, 고강성 PVC 이중벽관, 내충격 PVC 수도관, HDPE 수도관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음 - 고강성·내충격성 제품 개발과 신소재 적용, 생산 공정 혁신으로 KS 인증 등 품질 인증을 획득하며,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주)삼정DCP	- 친환경 PVC 파이프 전문기업으로, 내충격 PVC 수도관, 고강성 PVC 이중벽관, 하수관, 소형맨홀 등 다양한 상하수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보강링 등 특허 기술을 통해 내구성과 시공성을 높였으며, 친환경 공정과 품질 중심의 경영으로 국가 기간산업과 물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PPI파이프(주)	- 종합 PVC관 전문기업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 오·배수관, 이음관 등 배관산업 전 분야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음 - iPVC 등 혁신 제품 개발과 품질 인증, 국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하며,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를 대표하고 있음
두리화학(주)	- 플라스틱 배관자재 전문기업으로, 건축·토목·소방용 PVC 파이프, 저소음 배관, 바이오 PVC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국내 최초 저소음 배관 개발, 친환경 소재 적용, 유럽 ISCC PLUS 인증 등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 외 (주)고비, (주)고리, (주)대진GPI, 대림PE(주) 등의 기업이 상하수도 및 플라스틱 파이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상하수도 및 플라스틱 파이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III. 기술분석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

동사는 자체 개발한 비굴착 보수 기술을 바탕으로 노후 상하수도관의 효율적 갱생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공법을 통해 폐기물과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공 환경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인프라의 수명 연장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분야

동사는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을 포함한 상하수도 사업, 생활 속 폐합성수지(PE)를 친환경 하수도관으로 재생산하는 재활용 사업, 강설 시 노면의 적설 및 결빙을 방지하며 친환경성이 향상된 친환경 제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매출은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 친환경 제설제(에코-다노가)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자격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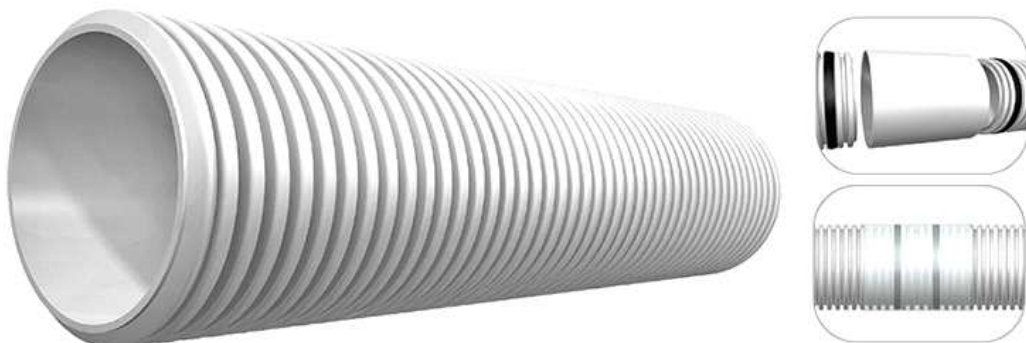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현재 상수도관, 하수도관, 빗물저장시설 및 친환경 제설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IBC 토트, PVC 드럼 및 플라스틱 재생펠렛을 화학제품 제조회사와 플라스틱 제조회사에 납품하여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 PVC 배관 제조 기술

동사는 기존 PVC 배관의 단점인 내충격성을 보강하기 위해 독자적인 소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PVC 입자 사이의 고무 성분이 충격을 흡수하여 균열 전파를 멈추게 함으로써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의 내충격 성능을 발휘하는 PVC 배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기존 단층 구조의 하수관에 비해 강도 및 내구성을 높인 배관 구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내 등록특허 ‘이중벽관(제10-2221306호)’에 따르면 외벽의 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외벽용 합성수지조성물과 내벽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벽용 합성수지조성물을 두 대의 압출기를 이용하여 내벽과 외벽을 이루어진 이중벽관을 제조함으로써 외벽의 강성과 내벽의 내마모성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고, 해당 제조 기술로 제조된 배관은 외압에 강하고 시공 후 침하 및 균열 방지 기능이 우수하여 대형 하수도 정비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6. 동사 PVC이중벽관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발췌(2025)

■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

동사는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에 대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상하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의 NPR 공법은 노후 상하수도관을 굴착 없이 갱생하는 대표적인 비굴착 기술로, 기존 관 내부에 PVC 프로파일을 결합하고 특수 모르타르를 충전해 기존 관과 일체화된 복합 갱생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NPR 공법은 제관 형태나 연장에 제한이 없고, 장거리 연속 시공이 가능하며,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도 물 돌리기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파일의 반투명 화로 모르타르 주입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유해가스 및 폐기물 발생이 없어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협소한 작업 면적에서도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 도심지 노후관 복구에 적합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신뢰받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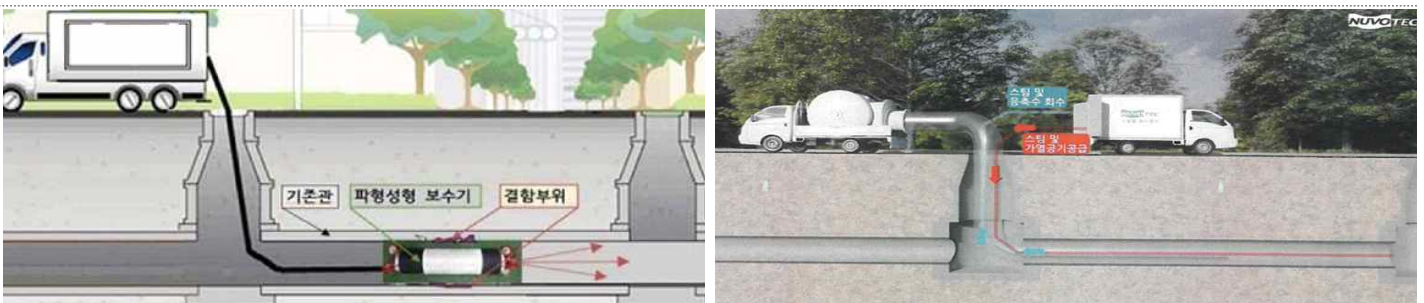
그림 7. 동사 NPR 공법



출처: 동사 제공 카탈로그 발췌(2025)

동사의 OCR 공법은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기반의 파형 성형 보수기를 이용해 하수관의 국부 결함 부위를 비굴착 방식으로 보수하는 기술로, CCTV를 이용하여 노후관 내부의 파손부위로 보수기를 이동하여 가압·팽창시켜 관로 내면에 새로운 관을 형성하므로, 보수 단면의 강성과 강도를 최적화하고, 접촉체의 누출과 열화, 보수재 손상 및 박리 현상을 방지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ERS 공법은 스팀 열회수 시스템을 활용해 하수관로 전체를 비굴착 방식으로 보수하는 기술로, 에너지와 물의 재이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RS 공법은 시공이 1일 내로 완료가능해 교통장애를 최소화하고, 온도 및 압력이 자동 제어되어 안전성이 높다. 또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사회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교체 주기 연장으로 채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보수 후에는 이음부 없는 일체의 관이 형성되어 오수 누수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고,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을 높인다. 내구성 면에서는 황화수소에 강하고 내마모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해 기존관의 수명을 신관 수준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8. 동사 OCR 공법(좌) 및 ERS 공법(우)



출처: 동사 제공 카탈로그 발췌(2025)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신기술사업 중 NPR 공법, OCR 공법, ERS 공법, 우수저류조(Rain Station)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경상연구개발비)은 2022년 1.43%, 2023년 1.59%, 2024년 1.19%로 확인되며, R&D 투자를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우수저류조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 빗물 저류장치 및 분사장치가 결합된 스마트 빗물 재이용시스템 개발(2022.04.~2023.12.)’, ‘LID 기반의 식생형 빗물유출관리 및 원격제어형 지하저류시설 구축을 위한 공동협업프로젝트(2021.07.~2022.12.)’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신기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술 진입장벽

기술적 권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은 작성일 기준 국내 등록 특허 70여 건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상하수도 제품의 생산을 위한 이중벽관, 친환경 숲 제설제 및 내식성 제설제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상하수도 시장과 친환경 제설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PVC 프로파일형상 가이드시스템,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요철면 성형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 스팀열 회수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기술에 대한 환경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표 4. 주요 인증 현황

기술명	공시기관	등록일
스팀열 회수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기술	환경부	2024.07.23
GFRP 요철면 성형 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	환경부	2022.03.17
PVC 프로파일형상 가이드시스템	환경부	2021.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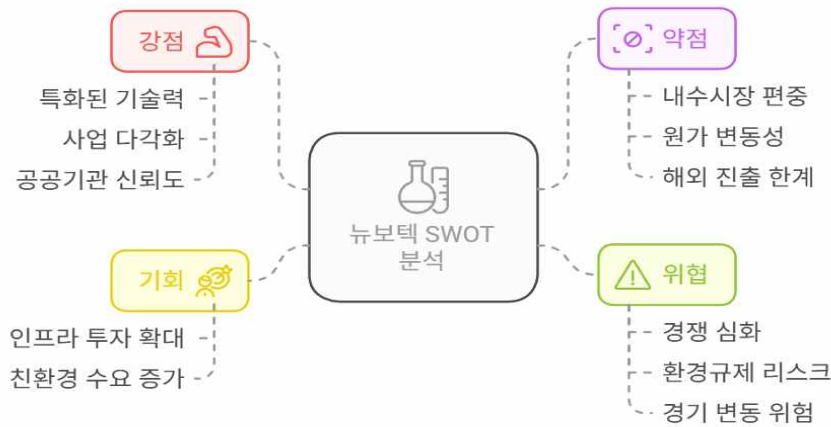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발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이 외에도 ‘비굴착형 하수관 보수 시스템(10-2393599호)’, ‘비굴착 관로 보강용 고정 부재 및 이를 이용한 관로 보수방법(10-1441934호)’, ‘라이닝 프로파일을 이용한 비굴착 라이닝 시공 시스템(10-1502830호)’ 등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에 대하여 국내 등록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관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 중이며,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사는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법, 재활용 원료 기술, 친환경 제설제 등 환경 인프라 핵심 분야에서 자체 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ERS 공법은 스팀 열회수 기능과 GFRP 복합소재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비굴착 복원 방식으로 경쟁사 대비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또한, 수처리 재이용 및 고강성 이중벽관 등 기존 관로 제품군과 연계한 기술 시너지를 통해 R&D의 연속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SWOT 분석

뉴보텍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특화된 기술력: 국내 최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 개발 및 환경신기술 인증 등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 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함
- 사업 다각화: 상하수도관, 플라스틱 재활용, 제설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시장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
- 공공기관 신뢰도: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대통령상 등 다수의 공공기관 인증과 수상 경력을 통해 대외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2. 약점 (Weaknesses)

- 내수시장 편중: 국내 상하수도관 사업 비중이 높아 내수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매출 구조를 보유함
- 원가 변동성: PVC 등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영업이익률의 변동 폭이 커져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해외 진출 한계: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미흡으로 성장 한계와 시장 다변화에 제약이 존재함

3. 기회 (Opportunities)

-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의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및 상수도 현대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신규 수주 및 성장 기회 존재함
- 친환경 수요 증가: 친환경 건설자재 및 재생 플라스틱 수요 증가로 관련 제품과 기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4. 위협 (Threats)

- 경쟁 심화: 경쟁사와의 점유율 경쟁 심화로 가격 및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 환경규제 리스크: 환경규제 강화로 PVC 등 특정 소재 사용 제한 가능성에 따라 주력 제품의 시장성 위축이 우려됨
- 경기 변동 위험: 건설경기 침체 및 공공사업 발주 감소 시 매출 위축 위험이 상존함

IV. 재무분석

2024년 매출 감소에도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친환경 제설제 판매 증가, HI-VG하수도관 판매 증가에도 정부 및 건설회사의 상하수도 공사 부진으로 전년대비 동사 매출이 축소되고 판관비 부담이 확대되었으나 원가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상승하였다.

■ 2024년 산업 예산 축소 및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동사는 플라스틱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과 그 부속 자재들을 생산하여 전국 상하수도 사업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형 건설사를 주요 고객으로 당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부문은 고강성 PVC 이중벽하수관을 가장 큰 비중으로 메가오수반이, HI-VG 하수도관, 그리고 공사매출로 매출이 구성된다. 재활용 사업부문은 재생펠렛, 드럼고 토트가 주요 매출을 구성, 제설제 사업부문에서는 제설제가 주요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2022년 46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이후, 2023년 489억 원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이 43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제설제사업부문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환경부 예산 감소 및 건설경기 침체로 상하수도사업부문 매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 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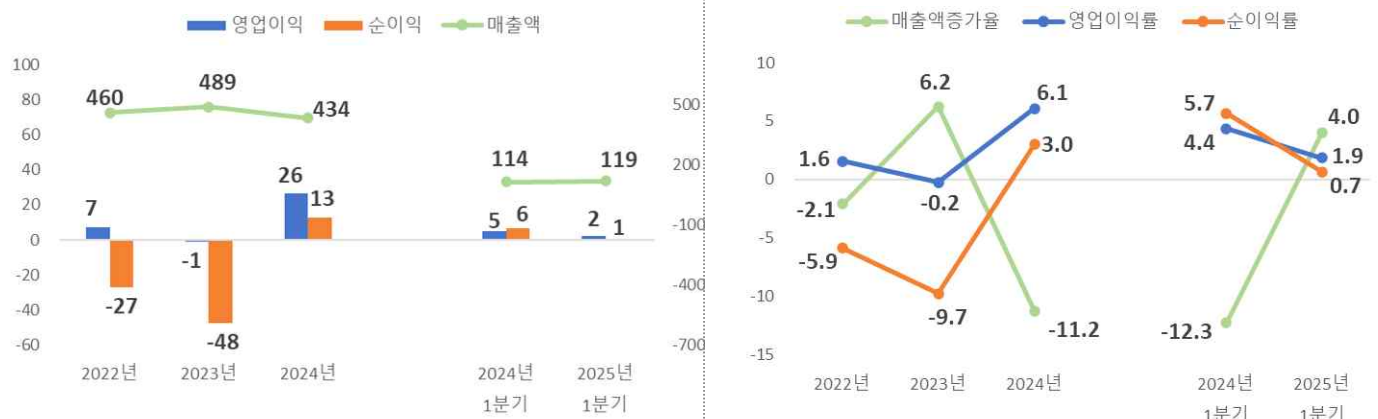
■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2023년에는 재활용사업부문에서 2022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매출처가 감소하며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동사의 주요 매출을 구성하는 상하수도사업부문의 매출이 소폭 증가하며 매출이 2022년 460억 원에서 48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매출 증가에도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증가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2024년에는 매출 감소에도 공사손실충당금의 환입으로 판관비 감소, 상하수도사업부와 제설제사업부의 원가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2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하락하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축소되었다.

그림 9.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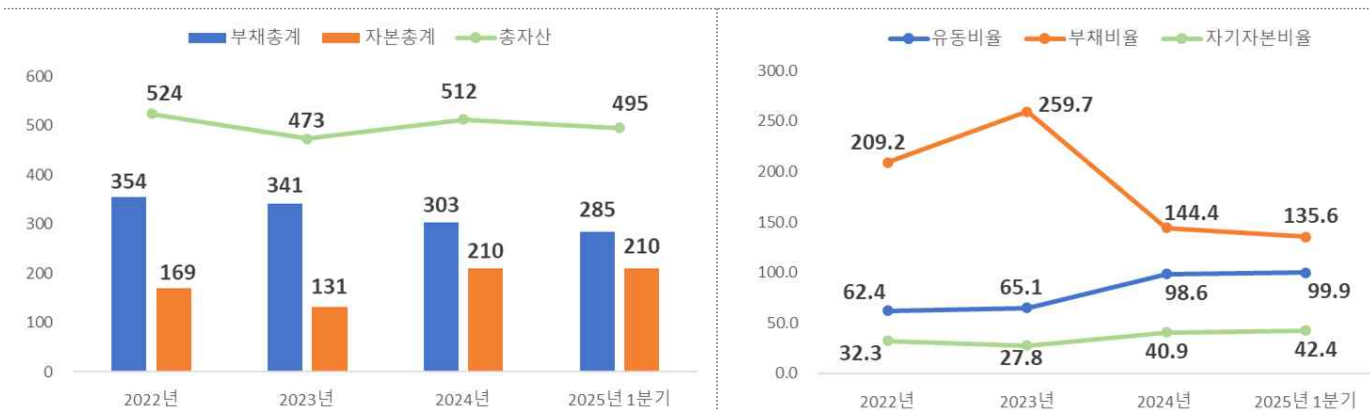
■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상승, 부채비율 하락 추세로 재무건전성 개선 흐름

2023년 결산 기준 유동비율은 65.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익결손금 증가로 자본총계가 감소하며 자기자본비율은 27.8%로 하락, 부채비율은 259.7%로 상승하였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로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유동부채는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상승, 98.6%를 기록하였다. 유동부채 감소로 부채총계가 감소하고 이익잉여금 개선, 지배기업 귀속 자본 증가로 자본총계가 증가하며 부채비율 또한 144.4%로 축소, 자기자본비율은 40.9%로 상승하였다. 2025년 1분기에도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상승하며 재무 건전성이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5.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매출액	460	489	434	114	119
매출액증가율(%)	-2.1	6.2	-11.2	-12.3	4.0
영업이익	7	-1	26	5	2
영업이익률(%)	1.6	-0.2	6.1	4.4	1.9
순이익	-27	-48	13	6	1
순이익률(%)	-5.9	-9.7	3.0	5.7	0.7
부채총계	354	341	303	323	285
자본총계	169	131	210	138	210
총자산	524	473	512	461	495
유동비율(%)	62.4	65.1	98.6	66.0	99.9
부채비율(%)	209.2	259.7	144.4	235.2	135.6
자기자본비율(%)	32.3	27.8	40.9	29.8	42.4
영업현금흐름	-5	48	42	2	-13
투자현금흐름	-78	-6	-5	-3	-4
재무현금흐름	17	-50	32	-1	-6
기말 현금	37	28	98	26	7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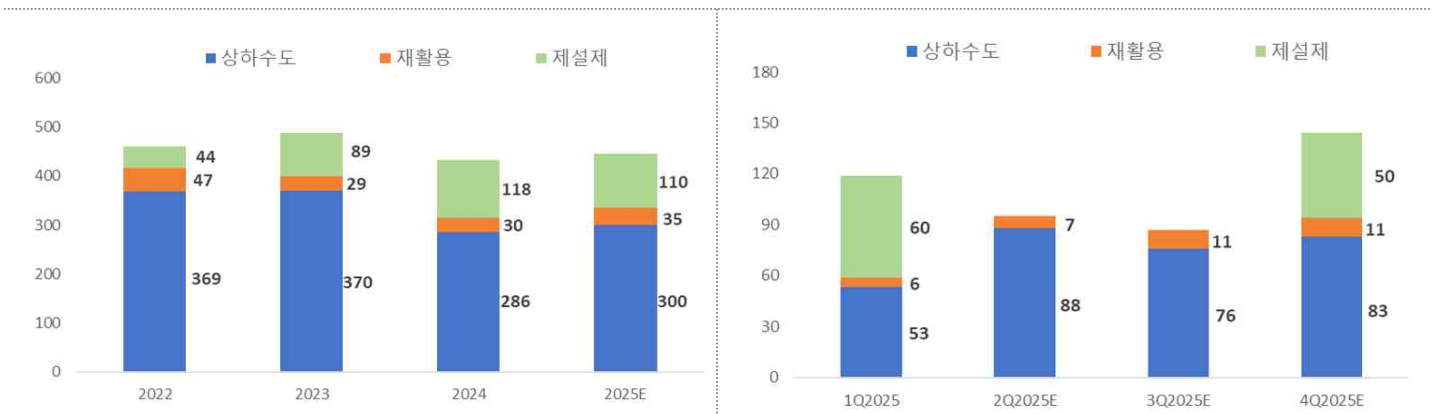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2025년은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제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 재활용사업, 제설제사업 전반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상하수도 부문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증가하고, 상수도 정비사업 역시 사업대상과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강성 PVC 하수관을 비롯한 주요 제품의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조달우수제품과 환경부 인증 등 공공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사업 부문은 글로벌 수준에서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및 세금 부과 등 규제 강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 전체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 재활용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시장 확장 국면에서 유리한 경쟁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설제 부문 역시 조달청의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 정책 속에 동사의 친환경 슛 고상 제설제가 품질과 성능에서 차별화를 확보한 제품으로써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2024년 조달시장 계약 규모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수요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전 사업부문에 걸쳐 정부 정책과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증 실적을 확보했으며,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유의미한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6.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1Q2025	2Q2025E	3Q2025E	4Q2025E
매출액(억 원)	460	489	434	445	119	95	87	144
상하수도	369	370	286	300	53	88	76	83
재활용	47	29	30	35	6	7	11	11
제설제	44	89	118	110	60	0	0	5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비굴착 관로 보수기술 고도화, 친환경 제설제 시장 확대, 수처리·재활용 신사업 진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

신기술 확보를 통해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법(ERS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제설제의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수처리 재이용 및 재활용 원료 사업을 강화하고, 하수관거 개선과 같은 미래형 환경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굴착 공법 중심의 환경 토목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 신기술 확보 및 친환경 제설제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동사는 2024년 환경신기술(ERS 공법, 제633호)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 및 친환경 숲 고상 제설제의 우수상용품 지정 등을 통해 친환경 제설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친환경 제설제 ‘에코-다노가’는 2022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약 11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고결화 방지 기능, 생태독성 저감 등 차별화된 성능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장점유율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품질 성능 개선 및 제설 능력 강화를 위한 원료 배합 기술과 환경성 개선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 친환경 제설제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처리 및 비굴착 공법 등 미래형 환경 인프라 사업 본격화

동사는 고액분리형 전기촉매필터(EF) 기반의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으며, 빗물저장시설(저류조) 및 스마트팜 연계 기술 등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굴착 관로 보수·보강 기술인 NPR, OCR, ERS CIPP 공법은 환경신기술 인증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물량 증가에 맞춰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의 물 재이용 촉진법, 노후 인프라 교체 정책과 연계된 이들 사업은 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는 자체 자재 생산 시스템과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과 품질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통해 동사는 지속 가능한 환경 인프라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뉴보텍은 비굴착 하수관 보수 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 중인 기업으로, 특히 자사 개발 공법인 ERS는 도로 굴착 없이 보수가 가능해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주목받으며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되고 기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증가한 싱크홀 사고 대응 기술로 부각되며 공공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스마트 하수도 정책과 맞물려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수도권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의 수주를 기반으로 실적이 반등했고, ESG 트렌드, 공공 인프라 안전 이슈,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맞물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출처: Chat GPT

뉴보텍(060260)

뉴보텍은 정부의 노후 상하수관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제설제 '에코-다노가'로 연간 100억 원의 수주를 달성하며 친환경 제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도심 싱크홀 문제로 인해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관련 매출 증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상증자 청약률이 251%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과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더욱 튼튼한 회사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 출처: 뽀튼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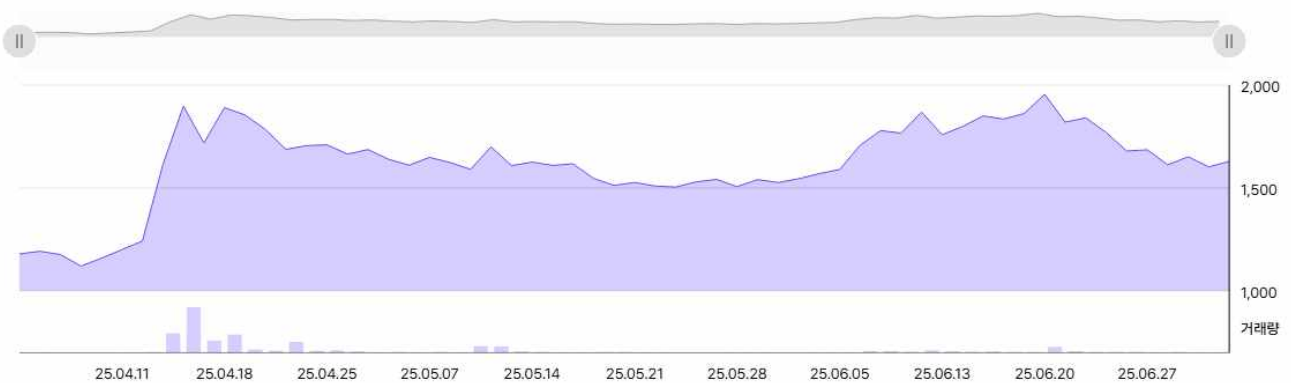
060260 코스닥

기준 : 2025.07.03 | 단위 : 원, 주, %

1,630 ▲27 +1.66%

전일 1,603 고가 1,633 거래량 52,168 주
시가 1,603 저가 1,600 거래대금 85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5.07.0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주)뉴보텍	X	X	X